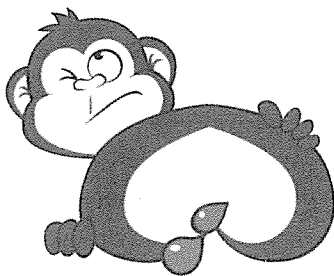


## 치질(2) / 치루 · 치열

강 윤 식 · 서울외과 대장항문외과의사

**지** 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치핵 · 치루 · 치열을 합하여 치질이라 부른다. 이중 가장 많은 치핵에 대해선 말씀드렸고 이제는 치루와 치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항문 깊숙히 직장 주위에 고름이 잡혔다 빠졌다 하는 분들이 있다. 몸살기가 있을 때마다 항문이 함께 빠근하다면 항문진찰을 받아 봐야 한다.

농양으로부터 시작되어 생기는 치루는 누관 즉 내공으로부터 항문 옆 피부로 싯길이 뚫려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이나 진물이 나오거나 가스가 나오기도 한다. 때론 가끔씩 고름이 잡혔다가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

### 3) 진단

진단은 대개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직장항문 초음파 검사를 한다.

자꾸 재발하는 복잡성 치루에서는 MRI라는 특수 검사를 하기도 한다.

### 4) 치료

농양이 일단 생기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고름이 더 잡

### 1. 항문직장 주위 농양 및 치루

항문 직장 주위 농양은 많은 경우 치루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항문직장 주위 농양이란 말 그대로 항문 또는 직장 주위에 고름이 잡힌 것을 말한다.

항문직장 주위 농양은 항문 안쪽에 내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 배농을 한 후에도 이곳을 통해 오물이 들어가 반복해서 농양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농양이 생기는 것을 치루라고 부른다.

내공은 보통 항문 안쪽으로 1.5 cm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항문샘에 위치한다. 항문 바깥 쪽으로 뚫려 나온

구멍은 외공이라 부른다.

#### 1) 원인

구조적으로 항문샘이라고 부르는 함몰 부위가 깊은 사람에게 잘 생긴다.

이런 분들에게서 과로나 음주 등으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거나 심하게 설사를 한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핵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치루도 약 5% 정도 된다.

#### 2) 증상

농양이 생기면 항문 주위가 부어 오르고 통증이 생기며 몸에 열도 난다. 농양이 항문 깊숙히 생기면 길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몸살을 자주 앓는다고 생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양은 빨리 절개 배농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항문직장주위에 있는 중요한 괄약근들이 많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또 복잡한 형태의 농양으로 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개 배농을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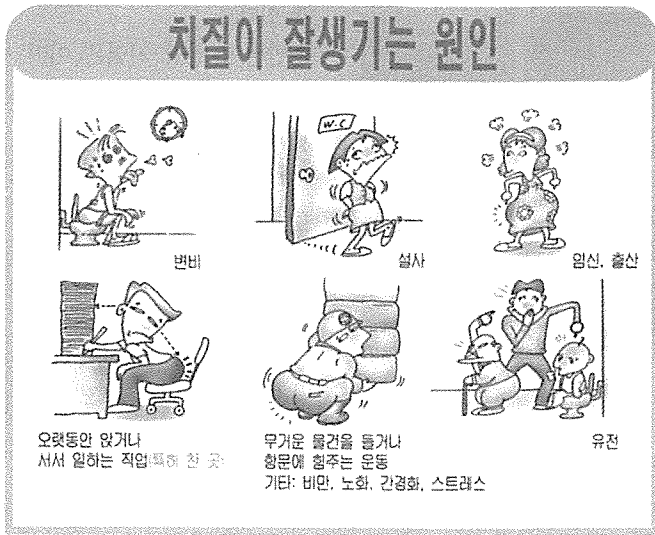
항문 속에 있는 내공을 통해 치루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급성 농양으로 배농을 해도 약 70-80%에서는 결국 치루로 진행된다.

치루로 진행되는 것은 농양의 치료를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내공의 크기 등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배농을 하고 6주 정도 기다려 본다.

농양을 절개할 당시에 항문 안쪽의 내공을 통해 고름이 나오면 치루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공을 포함해서 크게 절개를 하여 한번에 근치적인 수술을 하기도 한다.

치루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치루가 오래되면 복잡 치루로 진행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드물지만 오래된 치루에서 암이 발생된 예들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치루의 수술은 대개 괄약



근을 일부 잘라야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 경우에 따라선 괄약근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 내공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재발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법이라고 선전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방법들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그런 치료들은 필요 이상의 시간과 경비와 고통만 줄 뿐이며 심한 경우 항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5) 유아 치루

유아 치루는 돌 전에 생기는 치루를 말한다.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생긴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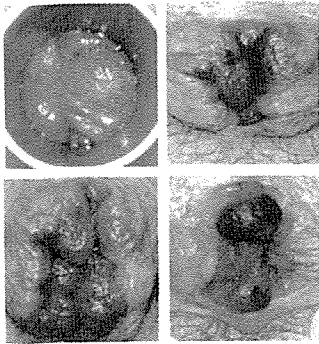
거의 남자아이에게서만 생기며 돌 전에 항문주위에 고름이 잡히는 것으로 시작

된다. 몇 군데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생기기도 한다. 유아 치루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고름만 짜내고 좌욕을 시키면 저절로 낫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른 치루처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필자는 유아 치루 환아들을 면밀히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해 놓고 치료에 임하고 있다.

첫째, 모든 아이들에게서 돌이 될 때까지는 배농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기다린다. 둘째, 돌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치루 수술을 한다. 셋째, 돌이 될 당시 증상이 없으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보도록 한다.



## 2. 치열

치열은 말 그대로 항문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그래서 배변 시 통증이 있고 피도 난다.

이 질환의 근원적인 문제는 항문이 좁다는데 있다. 정확히 말하면 좁다는 표현보다 항문 내 괄약근이 섬유화 되어 신전성(늘어나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다.

섬유화가 더 진행되면 실제적으로 항문이 좁아지게 된다. 이렇게 좁고 신전성이 없는 항문을 통해 변이 나오다 보면 항문이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 급성 치열과 만성 치열

치열은 급성 치열과 만성 치열로 나눈다. 급성 치열은 생긴지 얼마 안된 치열로 아직 내 괄약근에 섬유화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이다.

다시 말해 항문이 신전성이 떨어지거나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면 시 재발하지 않고 나올

수 있다.

반면에 만성 치열은 이미 내괄약근의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로, 내괄약근의 신전성이 떨어져 있고 항문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항문이 찢어지게 된다.

3개월 이상 경과되었거나 상처 바깥쪽으로 피부꼬리가 자라 있거나 변이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찢어지게 되면 만성 치열일 가능성이 많다.

### 2) 원인

항문 내 괄약근이 섬유화 되어 신전성이 없어지고 좁아지는 것은 항문에 생긴 상처로 내괄약근이 노출되면서 시작된다. 결국 반복적으로 생기는 상처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처가 나는 가장 많은 원인은 변비 때문에 변이 굵고 딱딱해지는 것이다. 설사를 심하게 한 후에 상처가 나기도 한다.

### 3) 증상

배변 시에 통증과 출혈이 있다. 환자 본인이 항문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가끔씩 그러다가 점점 자주 그리고 점점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드물게 통증이 없거나 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배변 후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심해지면 대변을 본 후 몇 시간씩 아프기도 하다. 노출된 괄약근이 자극을 받아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 4) 치료

급성기에는 온수 좌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괄약근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변을 굵게 보는 것이 좋다. 이때 변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보통 2-3개월간은 이런 치료를 지속해 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변의 굵기를 가늘게 만들고 또 묽게 만들면 항문에 상처를 덜 낼 수는 있지만 항문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괄약근이 섬유화 되고 좁아져 있는 만성 치열은 보존적 요법으로 일시적으로 호전된다 해도 예외 없이 다시 재발된다. 따라서 섬유화된 내괄약근을 부분적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95% 이상에서 완치가 된다. 수술도 간단하고 수술 후 회복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만성 치열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72